

중동 전쟁 최대 패자는 金... 안전자산 공식 깨졌다

25일 시세 전일비 4% 반등 불구
전쟁 발발 전보다 8% 낮은 수준
“금주 분수령... 가격 회복 더딜 것”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이란과 전쟁이 시작된 이후 '안전자산'이란 이름이 무색하게 하락세를 그리던 국내의 금값이 반등에 나서면서 향후 시세 흐름에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KRX 금시장의 국내 금 시세(99.99_1kg)는 오전 10시11분 현재 1g당 21만9천980원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 측이 이란에 1개월간 휴전하고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는 방안을 이란에 제안했다는 등 종전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일보다 4.01% 급등한 것이지만 전쟁 발발 이전인 지난달 27일(1g당 23만9천300원)보다는 8.07% 낮은 수준이다. 국제 금 시세와 선물 시세 등도 마찬가지로 흐름을 보인다. 한국거래소 집계 자료를 보면 지난달 27일 온스당 5,193.39달러였던 국제 금 시세는 이날 3일 장 중 한때 5,380.11달러까지 치솟기도 했으나, 23일에는 4,243.22달러까지 추락했다.

25일에는 3.38% 오르면서 온스당 4,386.78달러로 올라섰지만 여전히 전쟁 전보다는 15.53% 낮은 가격을 보였다. 시카고과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 콤멕스(COMEX)에서 거래되는 4월 인도분 금 선물 가격은 지난달 27일 온스당 5,247.90달러에서 이날 24일 온스당 4,549.70달러로 같은 기간 13.30% 하락했다. 통상 전쟁이나 위기 상황에서 가격이 오르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금이 위험자산이라도 되는 양 급등락을 거듭하는 기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주된 배경으로는 국제 금 시세가 최근 1년여 사이 갑질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가격 부담이 극도로 높아져 있었다는 점이 꼽힌다. 상품 특성상 환금성도 좋은 까닭에 변동성 장세에 대응하려는 투자자들이 가장 먼저 현금화하는 자산이 되면서 충격이 컸다는 이야기다. 금을 비롯한 귀금속 시세 급등의 주된 동력 중 하나였던 약(弱)달러와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에 대한 기대감이 급격히 약화된 것도 약재가 됐다. 이번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장기간 고공행진을 이어갈 경우 미국 등 주요국 물가가 치

솟으면서 중앙은행들이 더는 기준금리를 인하하기 어려운 처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에 갈수록 힘이 실리면서다. 올해 초 러시아 중앙은행이 15%의 금을 매각한 데 이어 폴란드 중앙은행도 국방비 증액을 위해 보유 중인 금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을 제안하는 등 각종 중앙은행의 금 매입 움직임이 약화할 조짐도 나타난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번 전쟁의 '최대 패자'는 금이라면서 "전쟁 후 금 가격은(지난 23일까지) 16% 하락했다. 글로벌 증시도 불안하고, 채권 가격도 하락했지만, 금 가격의 하락 폭이 유독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에 대해 "금이 안전자산보다 위험자산에 가까워 움직이며 분산효과가 떨어졌고, 탈달러, 즉 미국 달러 가치 하락 위험을 방어하는 기능보다는 미국 국제, 즉 금리 하락에 대한 헤지 역할이 컸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이어 "금주는 이번 전쟁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전쟁이 끝나면 역으로 금에 대한 수요 압박도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포트폴리오 분산효과 약화 등을 고려할 때 금 가격의 회복력은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봄동 비빔밥’ 간편식 출시 25일 서울 이마트 용산점에서 모델들이 ‘봄동 비빔밥 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SNS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봄동비빔밥 간편식 ‘봄동 비빔밥 키트’를 이날부터 판매하며, ‘봄동우렁 비빔밥’도 함께 선보인다. /연합뉴스

광주디자인진흥원 ‘공예품대전 예선’ 개최

오는 5월18일-21일 접수

광주디자인진흥원이 지역 우수 공예품 발굴과 지원을 위한 '제56회 대한민국 공예품대전 광주시 예선'을 개최한다. 광주디자인진흥원은 25일 "공예품대전 광주 예선 접수를 오는 5월18일-2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56회째를 맞이하는 대한민국공예품대전은 국가유산청과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가 주관하는 국내 대표 공예 공모전이다. 모집 분야는 ▲목·칠 ▲금속 ▲도자 ▲섬유 ▲종이 ▲기타공예 등 총 6개 부문이다. 심사는 공예 기술력, 디자인, 상품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약 25점의 작품을 선정할 계획이며 예선 대회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최대 300만원의 개발장려금이 지급된다. 참가 대상은 광주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공예 사업자와 개인, 그리고 지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등으로, 광주 소재 증명이 가능하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예선에서 입상한 25개 작품은 전국 본선 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며 본선 심사는 오는 8월 충남 한국전통문화대학교에서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공모 세부 내용과 일정 등은 광주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gdc.or.kr) 및 오펜즈 홈페이지(ohands.net)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연태호기자

농어촌公, 中 농산업 박람회서 한국관 운영

189만달러 규모 수출 협약·계약 체결

한국농어촌공사가 일본에 이어 중국 농산업 박람회에 참가하며 아시아 농기자재 시장에서 케이(K)-농기자재의 입지를 더욱 확고히 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25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2026 중국 농약 및 작물보호 박람회(CAC 2026)'에서 한국관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박람회에서는 189만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 및 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양 기관은 박람회 참가기업 규모를 지난해 대비 2배로 확대하며 K-농기자재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했다. 중국 정부는 2024년 '식량안보법'을 개정하며 자국 내 식량 생산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이와 동시에 탄소 중립을 위한 '친환경 농업 전환' 정책도 강력하게 추진 중이다. 공사는 현지 시장의 두 가지 핵심 수요를 겨냥해, 국내 우수 비료 및 친환경 농자재 기업 20개사로 한국관을 구성했다. 맞춤형 시장 공략으로 K-농기자재는 현지 바이어의 큰 주목을 받았다. 공사는 박람회 참가 전 중국 농산업 동향과



진출 전략에 대한 전문가 초청 강의를 진행했다. 박람회 참가 기업과 해외 바이어를 사전에 연결해 현장에서 수준 높은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를 바탕으로 박람회에서는 97만달러(238건) 규모의 심도 있는 상담이 이뤄졌다. 특히 189만달러(12건)의 수출 업무협약과 1만 달러(1건)의 계약을 체결하며 수출 확대 기반을 마련했다. 주영일 한국농어촌공사 수자원관리이사는 "아시아 최대 농업 시장이자 세계적인 농업 강

국인 중국에서 열린 이번 박람회를 통해 K-농기자재의 경쟁력을 확고히 할 수 있었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다양한 수출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 농산업의 해외 진출을 가속하는 데 이바지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현재 '농산업수출종합지원시스템(https://www.agroex.or.kr/)'을 통해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시장개척단 ▲부처협업형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사업 등의 사업에 참가할 국내 농기자재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임재만기자

농협개혁위 “농협중앙회장 출마시 조합장 사퇴”

농협개혁위원회가 농협중앙회장 출마시 조합장 장직 사퇴 의무화와 퇴직자 재취업 제한 기준 즉시 적용 등을 포함한 13개 개혁과제를 확정했다. 농협개혁위원회는 지난 24일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에서 제5차 회의를 열고 '농업인과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농협 개혁 권고문'을 채택했다고 25일 밝혔다. 권고안은 ▲선거·인사제도 개선 ▲책임경영·내부통제 강화 ▲경제사업 활성화 및 자금운용

투명성 제고 등 3개 부문 13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현직 조합장이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사퇴를 의무화하고, 조합장추천제(조합장 50-100명 추천)를 폐지해 후보 진입 장벽을 낮추도록 했다. 선거범죄 공소시효 연장과 제재 강화도 포함됐다. 범농협 임원 선임 시 재취업 제한 기준을 강화하고 외부 추천 채널을 확대해 공정성을 높이는 등도 포함됐다. /연합뉴스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